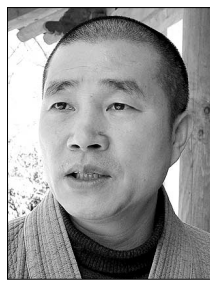


“北에 못자리 비닐 보냅시다”

‘겨레하나’ 광주전남운동본부 펼쳐 北 정식요청 수용 4월경 성금 전달



현지스님

앞장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지 스님은 “이번 일이 또 북한에 퍼주기가 아니냐는 감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가 꼭 필요하다”며 불자들의 이해와 동참을 요청했다. 현재 북에서 필요로 하는 못자리용 비닐은 100m 비닐 30만톤, 1만원이면 67m 비닐을 보낼 수 있고, 이 비닐은 3350명의 못자리를 할

수 있으며, 쌀 67가마를 생산해 42명이 1년 주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북에 못자리 비닐보내기 운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0년,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북에 못자리 비닐보내기 운동을 펼쳤고, 불교계를 대표해 현지스님이 적극 동참했다. 이 인연으로 지난 1월 ‘겨레하나’ 발족과 함께 스님이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 북에서는 그때 보낸 비닐을 3년간 씌어서 사용했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이번에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해 왔던 것이다. “대승불교의 근간은 육바라밀로 그 중에 보시가 으뜸입니다. 못자리 비닐보내기는 생명을 나누는 보시행이므로 불자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겨레하나’는 3월말까지 성금을 모아 4월 중순경 북에 못자리 비닐을 전달할 예정이다. (농협 176086-52-068084 예금주 이형한(겨레하나), 062-528-8116)

광주=이준엽 기자

“납골당 설치 주민동의 필요없다”

남원시, 관음사에 신고수리 거부 전주지법, “수리거부취소” 판결 “중교시설 활용차원에 불과하다”

읍사에서 장묘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납골당과 유족편의시설, 관리사무실이 남원시 보절면 서치리 695 구거(溝渠)를 무단 점용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납골당 설치 신고수리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관음사가 전주지법에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편의시설, 관리실이 구거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흠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원고의 납골당 설치 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관련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 서당마을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나 농지를 무단 점용하였다는 사유는 피고가 적시한 이 사건 처분사유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사건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종교시설을 납골당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불과한 점, 서당마을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봉영 기자

서산시, 불교문화 관광벨트 조성 보원사지-개심사-부석사 연계

서산시가 서해안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교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벨트 조성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최근 서산시에 제출한 ‘서산관광광종합계획 수립 보고서’에서 서산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이 가운데 동부권과 남부권을 불교문화 체험지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부권의 경우는 보원사지 불교공원 조성 및 개심사 산사정원 조성 등의 사업계획안인, 남부권에서는 부석사 일원을 산사체험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서산시에삼존불상에서 약 1Km 거리에 위치한 보원사지는 사적 제316호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초기의 석탑양식을 고루 갖춘 5층 석탑과 통돌이 장방형으로 만든 석조, 고려 경종3년(978)에 법인국사의 제자들이 그의 사리를 안치하기 위하여 만든 보승당, 법인국사의 생애가 기록된 보승비 및 큰 불교행사가 있을 때 불기나 행사를 치르는 당간을 세우기 위해 만든 화강석의 당간지주를 볼 수 있어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불교공원이 조성되고 개심사에 산사정원이 조성될 경우 부석사와 연계한 불교 체험 관광벨트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영우 기자

대전·충남불자회 ‘스님의 날’ 행사

대전·충남 재가불자회(수석공동회장 김현경)가 부처님 출가일을 ‘스님의 날’로 정하고 2월27일 보문사 그린타워호텔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스님의 날’ 행사는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는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힘을 마련된 것이다. 이날 법회에는 대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광 스님, 감사주지장곡 스님, 심광사주지담오 스님 등을 포함해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영우 기자



“이웃과 함께하는 삶 행복”

서울실상선원 연등회 이만덕행 회장



실상선원 산신각에서 108배를 하고있는 만덕행 보살(사진 오른쪽).

“봉사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닌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입니다.” 서울실상선원이 이만덕행(이병발·62) 보살은 무의탁노인 무료배식활동, 노숙자 생활지원, 백혈병 어린이 후원 등 지난 십여 년 간의 봉사활동 내용을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어려움이요? 많지요. 일주일에 3-4일은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집도 잘 돌볼 수 없고, 육체적으로 무리가 오기도 하고...” 하지만 가족들의 만류도 잦은 무리로 인한 질병도 만덕행 보살의 보살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영등포의 보현의 집, 논산 천축사에 위치한 무의탁노인상담실 등 지금 만덕행 보살이 실상선원 봉사단체 ‘연등회’를 이끌고 봉사활동을 나가는 곳은 한 두 곳이 아니다. “어려움이요? 많지요. 일주일에 3-4일은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집도 잘 돌볼 수 없고, 육체적으로 무리가 오기도 하고...” 하지만 가족들의 만류도 잦은 무리로 인한 질병도 만덕행 보살의 보살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매주 3일 이상 무의탁노인돕기 등 봉사

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지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 밥그릇만 헹궜구나 하는 마음에 말입니다.” 그렇게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무료배식활동에 동참했다. 하루 한끼라도 배를 채우기 위해 인천, 수원 등 먼 곳에서 종로 탑골공원으로 찾아오는 노인들을 보았다. 불이 라지만 아직도 추운 날씨. 번번히 많은 웃웃에 손을 녹여가며 무료배식을 기다리는 노인들을 보며 만덕행 보살은 충격을 받아 적극적으로 봉사할 곳을 찾아다녔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자신의 소임이라 믿기 때문이다. 연등회의 활동내용이 신도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신도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없이 해주고 있어 더욱 신이 난다는 만덕행 보살. “어떻게 사는 분들을 보며, 삶에 자기만족이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자신의 허울 안에서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연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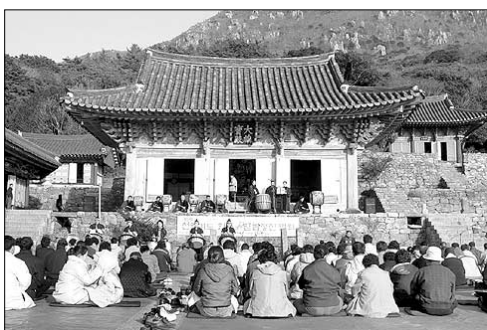
추천의 말

성환 스님 실상선원장

상대지않는 최고의 포교사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어렵고 아픈 사람을 앞장서 돕고, 상내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주위의 분들을 부처님 품으로 이끄는, 실상선원 최고의 포교사입니다.

미항사, 범종불사 천일기도 회향 6월 종각 건립 10월23일 타종식



해남 미항사는 3월1일 범종불사발원 1000일 기도를 회향했다.

달마산 미항사가 범종불사를 발원하고 인제에 들었던 1000일 기도를 마치고 3월 1일 회향했다. 2월 29일 오후 10시, 동산풍물예술단의 영남 농악으로 회향전야를 축하하는 공연한마당이 시작됐다. 동산아미타합창단의 다도 퍼포먼스와 아미타춤, 바라춤, 화신곡 공연 등으로 한마당이 마무리 됐다. 이어 염불정진법회로 밤을 지낸 대종들은 2000년 12월 26일부터 1000일 동안 지속됐던 기도를 회향했다. 주지 금강 스님은 회향의 인사를 통해 “1834년 쓰여진 <대종증성기>에 범종을 새로 조성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으나 현재 미항사에는 범종이 남아있지 않다”며 “그 종을 오늘에 다시 복원하겠다는 발원을 세우고 기도에 동참해 준 불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미항사의 범종불사는 6월 범종각 건립, 7월 범종 주조를 거쳐 10월 23일 타종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정토불교대학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정토불교대학이 2004년 3월 전국8개 지역에서 동시 개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불자들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정토불교대학에서 법륜스님의 살아있는 영성법문을 만나보십시오.

지역	학사일정				연락처
	학기	개강 - 종강	요일	시간	
서울(주/야)	1년제	3.9 ~ 12.14 (8월 방학)	화	오전11:00/오후7:30	02)587-8993
부산해운대법당(주/야)	1년제	3.8 ~ 12.13 (8월 방학)	월	오전11:00/오후7:30	051)747-9997
부산동래법당(주/야)		3.12 ~ 12.17 (8월 방학)	금	오전11:00/오후7:30	051)557-2746
▶ 서울, 부산은 2학기 1년 과정임.					
대구(주/야)	1년제	3.9 ~ 7.20	화	오전11:00/오후7:30	053)744-3025
대전(주)	1년제	3.10 ~ 7.21	수	오전11:00	042)253-8990
청주(주)		3.12 ~ 7.23	금	오전11:00	043)284-5951
마산(주)		3.12 ~ 7.23	금	오전11:00	055)247-8991
울산(주)		3.10 ~ 7.21	수	오전11:00	052)245-8995
광주(주)		3.11 ~ 7.22	목	오전11:00	062)511-8990

정토불교대학 특전

- ◇ 초심자 입문교육
- ◇ 환경, 복지, 통일 특강
- 법륜스님과 함께 하는 수련
- ◇ 특강수련 - 문경정토수련원
- ◇ 출입수련 - 문경정토수련원
- ◇ 수계식

모집안내

- ◇ 접수기간 : 2004. 3. 13까지
- ◇ 대상 : 바른불교를 찾고자하는 사람
- ◇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 반경합판사진2매
- ◇ 통참비 : 서울, 부산 12만원(1년제) 기타지역 6만원(안학기)
- ◇ 문의 : 각 지역법당

정토회 정토불교대학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 전화 02)587-8994 팩스 02)587-8998
http://www.jungto.org young@jungto.org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깨달음의 강좌

법륜스님의 금강경대강좌

2004년 봄, 절대적 자유와 완전한 행복을 위해 이 땅에 나투셨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금강경대강좌’가 전국 정토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법회는 부산 해운대 정토법당 개원 기념 법회로 진행되고 기타 지역법당에서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 전국 11개 정토법당 지역별 일정표

법당	요일	일정	수계식	연락처
서울법당	매주 수/목	3. 3 ~ 6.10	5/19(수)	02)587-8993
부산법당	매주 화/목	2.24 ~ 5.27	5/27(목)	051)747-9997
대구법당	매주 월/목	3. 1 ~ 6. 7	5/10(월)	053)744-3025
대전법당	매주 목/금	3. 4 ~ 6.10	5/21(금)	042)253-8990
청주법당	매주 화/수	3. 2 ~ 6. 8	5/14(금)	043)284-5951
마산법당	매주 화/수	3. 2 ~ 6. 9	5/12(수)	055)247-8991
울산법당	매주 화/금	3. 2 ~ 6. 8	5/ 7(금)	052)245-8995
광주법당	매주 월/금	3. 1 ~ 6. 7	5/17(월)	062)511-8990
제천법회	매주 화/수	3. 9 ~ 6.15	청주에서	043)648-0083
정읍법회	매주 수/금	3.10 ~ 6.16	광주에서	019-308-2731
제주법회	매주 화/목	3. 9 ~ 6.15	부산에서	064)724-7885

정토회 JungTo Society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1585-16호 / 전화 02)587-8994 팩스 02)587-8998
http://www.jungto.org young@jungto.org